

숨과심

삼애교회 목회서신

2020. 7. 12. 제42호

연세대학교 삼애교회
편집 발행인 김동환
031-975-1885, 1884(fax)
<http://samae.yonsei.ac.kr>
love3@yonsei.ac.kr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로 160-30

오직 주님만

창세기 24:58-61, 로마서 7:21-25, 마태복음서 11:28-30

로마서 7장에서 사도바울은 이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나는 법칙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곧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나에게 악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롬 7:21-23). 사도바울이 발견한 법칙이란 바로 ‘우리의 인생 법칙’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하는지에 대한 현실적인 인생 법칙입니다. 믿는 사람으로서 나의 속사람 곧 영으로는 뭔가 하나님 뜻에 맞게 제대로 살아가려하는데 나의 겉사람 곧 나의 육체가 따라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둘이 신앙인의 인생 여정에서 계속해서 서로 상충하며 갈등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세속적으로 막 사는 사람은 고민할 필요가 없는 인생 법칙이지만, 온전히 주님의 사도로 살아가기로 다짐한 바울에게는 가장 큰 이슈가 되는 인생 법칙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질문합니다.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 주겠습니까?”(24절)

뭔가 깨달음이 있는 신앙인, 성숙한 신앙인은 이 인생 법칙에서 답을 얻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합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의 대표자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서, 최고 지성인인 가말리엘의 제

자로서 율법을 지키려 최선을 다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인간적 노력으로 이 굴레와 같은 인생 법칙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바울의 신학을 계승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도 이 인생법칙의 굴레에서 헤어 나고자 온갖 노력을 다했습니다. 자신의 몸을 채찍으로 때리는 수행, 돌 계단을 무릎으로 오르는 고행을 하였으나 이 인생 법칙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바울과 루터 둘 모두 시행착오를 거쳐 결국 찾아내었던 답은 본인의 어설픈 노력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율법의 굴레로부터 해방되어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종교개혁의 기본 원리이며 개신교 신앙의 기본 틀입니다.

자, 이제 사도바울이 인생 법칙을 발견한 후 던졌던 질문에 대한 답이 나왔습니다.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 주겠습니까?”(24절)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은 이 질문 후 곧바로 너무 명확하게 그 답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25절). “건져 주신”이라고 할 때 ‘건지다’는 단어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구원하다’의 원어적 의미입니다. 즉 구원하다는 것은 물에서 건져낸다는 것입니다. 인생 법칙의 소용돌이 속에서 빠져 헤어 나올 수 없는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물에 빠진 내가 나를 건져낼 수 없습니다. 함께 물에 빠져 있는 다른 어느 누구도 나를 건져낼 수 없습니다. 나 또한 그들을 건져낼 수 없습니다. 오직 물에 빠져 있지 않은 자, 배 위에 있는 자만이 나와 그들을 건져낼 수 있습니다. 육신을 가지고 세상에 사나 전혀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 세상 죄에 전혀 물들지 않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생법칙의 소용돌이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 속에서 오직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한편 마태복음 11장에서 예수께서는 세상살이에 지친 우리들을 향해 무

거운 짐을 예수께로 다 가지고 오와 참된 쉼을 얻으라고 말씀 하십니다: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마 11:28). 너무나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어려운 짐을 지고 계십니까? 어려움이 우리 인생에 닥칠 때 그 어려움도 어려움이지만 그 어려움으로 인한 우리의 불안과 걱정이 더 큰 문제입니다. 그럼 처한 어려움으로 인한 우리의 걱정과 불안을 내려놓고 참된 위로와 평안과 쉼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 또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마치 창세기 24장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가족과 고향을 떠나서 처음 보는 아브라함의 종을 따라서 전혀 가보지 않은 곳으로 시집을 가겠냐는 질문에 “예. 가겠습니다”(창 24:58)라고 담대히 대답하는 리브가와 같은 참된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무거운 짐을 가지고 오면 쉼을 주시겠다고 하시면서 사뭇 특이한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에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29-30). 예수님의 멍에를 메라 하시고, 예수님의 멍에는 편하고 그 짐은 가볍다고 하십니다. 멍에란 소의 목 주위에 걸어서 수레나 짐을 끌게 하는 농기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멍에는 십자가 아닌가요? 그 엄청난 무게의 멍에를 지라고요? 십자가가 가볍다고요? 아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아무도 질 수 없는 최고의 멍에요 짐이 맞습니다. 그러나 포인트는, 예수께서 본인의 짐을 우리가 대신 지라고 떠맡기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멍에 곧 십자가는 이미 예수께서 다 지셨습니다. 우리는 양 같아서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으나 유월절 어린양 예수께서는 우리들의 죄, 우리들의 멍에까지도 홀로 이미 다 짊어지고 가셨고, 죽으심으로 그 모든 멍에와 짐의 값을 치루셨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가 질 짐은 없습니다. 결국 예수의 멍에를 지라는 것은 ‘예수와 동행하라’는 것입니다. 멍에에 매어진 짐은 이미 예수께서 다 지

셨으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괜히 혼자 힘들어하지 말고 우리 믿음의 대상인 예수와 동행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어려움도, 그로 인한 불안과 걱정도 우리 힘과 노력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세상 모든 문제를, 죄악을 홀로 멍에에 메고 끌고 가셔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값을 다 치루시고 부활하여 승리하신 진정한 문제 해결자, 참된 위로자, 구원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모든 어려움과 걱정과 불안과 짐을 다 맡기고, 그분과 함께 동행함으로써 참된 위로와 쉼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목사님이 선교지에서 어린 소에게 멍에를 지우고 끄는 법을 가르치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어린 소에게 멍에를 메게는 하였으나 실제 끌 짐은 없었다고 합니다. 실제 짐은 옆 어미 소의 멍에에 매어 있다고 합니다. 어린 소가 할 것은 진짜 짐을 멍에에 묶어서 끌고 가는 어미 소와 함께 나란히 걸어가면서 그 방법을 배우는 것뿐이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짐은 예수께서 이미 십자가를 통해 다 지셨으니 우리가 그의 멍에를 매었지만 그 멍에는 편하고 짐은 가벼운 것이지요. 결국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우리의 어려움도 모두 주님께 맡기고 그와 함께 동행 하면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쉼이 올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무거운 짐과는 비교할 수 없이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신 주님, 우리의 멍에와는 비교할 수 없는 죽음의 고난을 받으신 주님, 그러나 죽음에서도 부활하신 구원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리브가처럼, 사도바울처럼, 마르틴 루터처럼 인생 전체를 걸고 100% 믿고 의지함으로써 굴레와 같은 인생의 법칙 속에서 우리에게 닥쳐오는 어떤 유혹도 이겨내고, 처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진정한 위로와 평안과 쉼을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김 동 환 목사 (2020. 7. 5. 주일예배)